

##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오 혜 영

한국청소년상담원

지 승 희<sup>†</sup>

고려사이버대학교

박 현 진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학업중단 이후 성공적으로 학업에 복귀한 청소년들이 겪었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진 여러 가지 취약한 요인과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업복귀를 성취할 수 있었던 요인 즉, 학업복귀 후 다양한 어려움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이들이 겪었던 내적 경험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업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청소년 12명을 인터뷰하였으며 합의에 의한 질적연구방법(CQR)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은 '학업중단의 배경', '학업중단의 결정적 계기', '학업중단 당시의 느낌', '학업중단 후 생활', '학업복귀의 결정적 계기', '학업복귀과정의 어려움', '학업의 지속요인', '학업중단과 복귀경험에서 배운 점'의 8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를 학업중단 청소년의 발달과정으로 이해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보호요인에 대한 기초자료와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학업중단, 학업복귀, 합의에 의한 질적분석(CQR), 질적연구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상담원(2011)의 학업중단청소년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지승희,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10-80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06,  
Tel: 02-6361-1943, E-mail: 7jshee@daum.net

학업중단(school dropout)이란 자의든 타의든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권이중, 2010; 조성연, 이미리, 박은미, 2009).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학업중단청소년이 6~7만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학업중단이 지속될 경우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학업중단이 지속되면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오승근, 2009), 무기력한 부모와 같은 가정적 기능약화(김혜영, 2001), 인터넷중독, 우울, 자살 등의 2차적 정서장애(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이치열, 2010)까지 유발하는 등 개인적, 가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 및 성폭력(성윤숙, 박병식, 2009), 가출, 폭력, 비행(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 2005), 사회적 범죄 연류비용 증가(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은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배회·은둔 등의 NEET형(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소년이 5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선아, 2010).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학업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손실 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개입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에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Do Dream Zone Project)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뉴스타트 프로젝트(New Start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프로젝트(Wee Project)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한 이후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즉, 현재까지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의 국내 정책과 사업들은 대부분 학업중단 이후 취업, 자립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취업과 자립보다는 어떤 형태든지 학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금명자 외, 2004;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안현의 외, 200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실제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취업과 자립 현실을 보면 대부분 이들의 취업형태가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일용직에 국한되어 취업안정성이 떨어지며(금명자 외, 2004; 고기홍, 2003), 정규직이라도 근로환경, 시간,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원하는 직업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기홍, 2003; 고용노동부, 2009).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성인기에도 쭉 이어져 직업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권이중, 2010)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취업이나 자립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며 일정 정도의 학력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조사(2009)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 중 절반이상인 52.5%가 일정 정도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진학 및 복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안현의 외(2002)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절반가량이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학업의지와 진로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영승 등(조영승, 구본용, 신현숙, 2001)의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복귀를 희망하였으며 중퇴 후 복학절차, 검정고시준비 등과 관련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즉, 스스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학교를 그만 두기는 하였지만, 학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경상 외(2003)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복귀를 희망하지만, 실제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었던 가족 갈등 및 해체,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불만족,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학업복귀는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규학교를 통한 계속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대안적 계속학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낮은 가정경제수준(구본용 외 2002; 구자경, 2003),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유성경, 이소래, 1998; Rumberger, 1983), 결손된 가정(Jancek, 1999; Peraita, & Pastor, 2000), 한부모 가정(표갑수, 1993; Dupper, 1993)의 청소년이었고 부모가 음주, 가정폭력, 학대와 같은 역기능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김준호, 박정선, 1993; Frankline, 1992). 또한 현행 입시체제 및 제도권 학교에 대한 불만(이경상, 조혜영, 2003; 조용환, 1998), 교사와 또래와의 갈등(김혜영, 2002), 생계 문제(윤여각 외, 2002) 등 다양한 문제와 취약성, 학업중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제도권으로의 학업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복귀과정을 다양화하여 이들이 자신의 특성과 욕구, 환경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학습을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숙영 등(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은 일찍이 학업복귀를 희망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을 진학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박창남(2001) 역시 학업복귀를 희망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진학형을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복교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심리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안학교는 개인의 특성과 욕구들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교육과정을 가진 제도권교육에 대한 대안적 학교체제모델이며(신효진, 노충래, 2007), 검정고시는 복교나 대안학교 등의 운영방식이나 경제적인 이유, 규제나 단속에 대한 갈등과 불만 등으로 학교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결과에 상응하는 학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전종희, 2005)로써 중졸, 고졸과 동등학력을 인정받음으로 진로나 직업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이다. 복교는 교육부에서는 1996년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복교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연중 수시로 희망 학교에 복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대안학교, 검정고시, 복교 등의 학업복귀를 선택하고 학업에 복귀하여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학업복귀를 지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다(김지혜, 2008; 이경상, 조혜영, 2003; 전종희, 2005). 주금옥(2002)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복귀라는 진로개척은 상당수가 실패하기 쉬우며, 김지혜(2008)는 이들의 진로장벽이 일반청소년의 진로장벽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발표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 보고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복귀는 재탈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복교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일찍이 1996년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아 복교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연중 수시로 희망 학교에 복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타 학교 출신 복학생의 재입학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복교한 청소년들의 역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도탈락한 125,382명의 중·고교생 중 14.7%인 18,521명이 복교했으나 이 중 20%인 3,720명이 다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통계연보, 1996). 이들의 재탈락 이유는 복학 후 또다시 무단결석하거나 가출하게 된 것, 학습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이유였다(한겨레신문, 1997. 10. 1). 실제로 학업복귀 후 청소년들은 교사와 동료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Ross, et al., 1992), 전반적인 학교생활, 즉 교내활동, 클럽활동, 그 외 사회적 활동에 융화를 하지 못하고, 무력감, 부적절감을 보고하였다(Wittenberg, 1988).

또한 복교가 아닌 검정고시를 선택한 경우에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선, 이상준(2009)은 장기간의 학업손실을 경험하고 성공경험도 거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검정고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검정고시 응시수는 매년 증가추세

이지만 실제 합격률은 31~40%에 불과하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전중희, 2005). 이경상(2003)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 자기통제부족이나 비행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경상과 조혜영(2003)은 이들 대부분이 혼자서 학원을 이용해 진학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할 가능성, 구체적 진로계획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지혜(2008)는 검정고시에 대한 사회적 시선, 시간관리능력, 정보의 부족, 합리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자신감 부족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대안교육시설을 선택한 경우에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unbaum, Lowry, Kann와 Paterman(2000)은 대안 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보다 위험행동 즉 폭력, 임신, 흡연, 자살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다양한 또래들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들의 전문성(신은희, 1999; 이선숙, 2001),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사회적응력을 약화시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홍기순, 2010; 홍성희, 2001). 또한 학교를 탈락한 부적응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낙인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목적의식이나 자기관리가 부재한 것(신효진, 노충래, 2007; 조용환, 1998)이나 시설과 운영과정이 제도권에 비해 부족하여(박익수, 2003; 신은희, 1998) 학습동기를 저하시키고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Franklin(1992)은 '이중의 어려움'이라고 학업복귀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즉, 실제 학업복귀 과정에서의 겪게 되는 실제 적응의 어려움과 개인적·환경적 취약성 가진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내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다시 학업을 포기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복귀 상황에서 이들의 재탈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외적인 취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복귀하여 맞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버티어내고 갈등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학업을 지속하도록 하게 하는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는 결핍에 초점을 맞춘 위험요인에 비하여 결핍요소를 보완시켜줄 수 있는 보호 요인의 중요성이 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Masten, & Reed, 2002). Hernandez(1993)는 복귀생의 중도탈락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청소년들의 발달적 적응을 돕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정적인 산출물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의 증진을 위한 개입전략이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보호요인이란 취약한 환경이나 조건하에서도 개인의 긍정적인 발달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개인의 발달에 악순환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한다(김택호, 김재환, 2004). 또한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작용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 발달 산출물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한다(Compas, Hinden, & Gerhardt, 1995). 청소년들의 보호요인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면 통제가능한 사건에서는 좀 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통제불가능한 사건이나 위험한 사건에서도 자신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Seligman, 1991).

보호요인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학교부적응이나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김은희, 이정숙, 2010; 김택호, 김재환, 2004; 김혜경, 2010; 나혜진, 2009). 특히 비행청소년(박소연, 2009), 미혼모(김은희, 이정숙, 2010), 시설청소년(장은혜, 2009), 기출청소년(정운숙, 2002) 등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영역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학업 중단 청소년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적다. 적응유연성(이성, 2006)과 자기개념(부산청소년상담지원센터, 2011), 사회적 유능성(주영아, 정현희, 2002)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보호요인으로만 소수 언급될 뿐이고 실제로 학업복귀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나 증거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까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업중단의 원인(권이중, 2010; 금명자, 2008; 김경식, 1997; 김성기, 2009; 배영태, 2003), 학업중단의 청소년의 특성(구분용, 2002; 구자경, 2003; 금명자 외 2004;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김혜영, 2001; 박창남, 2001; 박현선, 2004; 송광성, 구정화, 이명아, 김소희, 1992), 학업중단 실태(고기홍, 2003; 김선아, 2010;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90%이상이 양적인 연구로 개인사회학적 특성을 기술하거나 유형을 측정, 평가하거나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양적 연구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복귀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들이 겪는 다양한 경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과 깊이 있고 생생한 정보와 내적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내적 경험을 알 수 있는 연구는 학업중단 경험에 대한 연구(김혜영, 2001; 박현선, 2004; 성운숙, 2005)가 소수 이루어져왔으나 학업복귀에 성공한 이들의 경험 과정과 학업지속 요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박현선(2004)은 7명의 성공적으로 잘 적응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발달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였으나 학업복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생애사적 관심에서 적응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김지혜(2008)는 검정고시 준비하는 4명을 심층인터뷰 하였으나 진로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업복귀의 지속요인은 탐색되지 않았다. 성운숙(2005)은 학교중도 탈락과정을 위기적 사건, 기질 강화, 촉진, 종결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으나 학업복귀까지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학업에 복귀한 청소년들이 학업복귀를 결심하고 학업복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목표한 학업과정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고 이들이 학업복귀를 지속할 수 있는 보호요인은 무엇인지를 그들의 주관적 경험세계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가진 여러 가지 취약한 요인과 갈등 상황에도 불

구하고 어떻게 학업복귀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가 즉, 학업복귀 후 다양한 어려움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복귀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발달과정과 관련한 이해의 토대를 얻을 수 있고 상담자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숙영 외(1997)와 박창남(2001)이 대안학교, 학교 복귀,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학업중단청소년을 '진학형'으로 분류한 정의와 같은 맥락에서 '대안학교, 학교복귀, 검정고시의 과정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학업복귀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심층인터뷰 하여 이들의 학업복귀 과정 속에 나타난 다양한 내적 경험, 생생한 느낌, 역동적이고 깊은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업중단을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일탈 사건으로 보기 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일련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과정(권이중, 2010)으로 보고,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쉽지 않았던 이들의 삶을 탐구하고 이들의 경험과정과 학업복귀를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업중단과 학업복귀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여 이들이 가진 어려움과 이와 관련한 내적 경험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학업중단 이후 다시 학업복귀를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지침이나 프로그램, 상담자교육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 방 법

### 자료분석 방법

학업중단 후 성공적으로 학업에 복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후 학업복귀 계기가 무엇이었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학교구분	학업중단 시기
사례 1	남	18세	인문계	고2 2학기
사례 2	남	18세	.	중국에서 중1
사례 3	남	18세	실업계	1차 중2/ 2차 고1
사례 4	남	18세	실업계	고 1
사례 5	여	19세	실업계	1차는 중1/ 2차 고1
사례 6	남	19세	실업계	고1 1학기
사례 7	여	20세	실업계	고1 1학기
사례 8	남	18세	실업계	고1 2학기
사례 9	여	21세	실업계	고1 1학기
사례 10	여	19세	실업계	고1 1학기
사례 11	여	19세	실업계	고2 1학기
사례 12	남	22세	실업계	고1/고2 2학기

는지 파악하고, 지금까지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었던지 탐색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 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CQR)방법을 사용하였다. 합의적 질적 분석은 연구대상의 경험을 범주화하고 그 경험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가 합의팀을 이루어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감수자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계기와 그 과정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었다.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으로 학업에 복귀한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학교에 복귀한지 1년 이상 지난 청소년으로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고 학업중단 의사가 없으며 교사 또는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하였다고 추천한 자이다. 또한 검정고시 공부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거나 합격한 후 계속학습을 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의 의사가 없는 자로 상담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학업중단 후 학업복귀를 한 청소년(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12명으로서, 남자 7명, 여자 5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19.08세였다. 연구대상자의 학업중단 시

기는 고1시기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는 현재 일반고, 방통고, 대안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 6명,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 수능준비 중인 청소년이 3명 대학 재학이 2명, 검정고시 재응시생이 1명이다.

### 분석팀

분석팀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4명의 합의팀과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합의팀은 상담심리전문가이며 상담심리 박사학위 소지자 2명, 상담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합의팀 구성원 4명 중 2명은 본 연구 이전에 여러 번의 합의적 질적 분석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1명은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 분석 연구에 참여하였다. 합의팀의 평균 연령은 46.3세이며, 합의팀 전원이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절차를 익혔다. 감수자는 상담심리전문가로서 CQR 방법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험이 있는 1인으로서 영역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 도 구

연구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사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팀의 합의를 거쳐 표 2와 같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최초 학업중단에 대한 이해, 복교를 하게 한 요인, 현재 상황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 절 차

### 참가자 선정과 면접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지역상담센터의 현장실무자들에게 의뢰를 하여 참가자들을 추천 받았다. 이들은 지역상담센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인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가했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서 검정고시에 통과하였거나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거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학까지 진학한 청소년들, 혹은 대안학교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최종적으로 면접에 동의한 청소년들 12명이 대상자가 되었다. 모든 면접은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녹음에 대한 내용을 동의를 받았고, 면접은 연구진들이 일대일로 면접을 실시한 후 소정의 답

례품(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면접 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추가질문을 하여 참가자들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참가자를 면접하기 전 연구진들은 서로의 관심을 정리하며,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였고, 면접 시 주의할 점 등을 의논하였다. 연구진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의 자문을 받아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생활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았다. 또한 면접의 동질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구진들이 3차례 만남을 가졌다. 면접 후에는 면접내용에 대해 연구진이 요약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축어록을 분석할 때는 단어, 맥락, 특이성 등에 집중하였다. 모든 분석과정에서 분석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참여자의 경험에 접근하여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견이 있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논의를 하였다.

### 영역과 핵심개념 코딩

합의팀은 4사례의 축어록을 모두 읽고 각자 범주와 영역을 만들고, 이후 전원이 모두 모여 각자 만든 범주와 영역을 상호 검토하여 범주와 영역을 결정하였다. 이후 나머지 8사례를 각자 읽고 모두 같은 과정을

표 2. 질문 내용

주제	질문내용
I. 학업중단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떻게 학업중단을 하게 되었나요?(학업중단한 상황)</li> <li>- 특별히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li> <li>-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는 어땠나요?(학교생활 포함)</li> <li>- 학업중단 후 생활은 어떠했나요?</li> <li>- 학업중단 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나요?</li> </ul>
II. 학업복귀를 하게 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떻게 복교/ 검정고시를 하게 되었나요?</li> <li>-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나요?</li> <li>- 복귀 과정은 어떠했나요?</li> <li>- 복귀 후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li> <li>- 복귀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li> <li>- 학업을 지속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li> </ul>
III. 학업복귀 후 현재 생활과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상황, 느낌, 생각)</li> <li>- 학업복귀를 통하여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li> <li>- 학업중단을 원하는 후배/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li> <li>-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li> <li>-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원하는 것 포함)</li> </ul>

거쳤다. 첫 번째 합의 과정을 통해 ‘학업중단 이전 상황’, ‘학업중단 배경’, ‘학업중단의 계기’, ‘자퇴당시의 느낌’, ‘학업중단 후 생활’, ‘학업복귀 계기’, ‘학업복귀 노력과정 중 어려움’, ‘학업지속 개인 요인’, ‘학업지속 환경 요인’, ‘자퇴하고 싶은 애들에게 조언’, ‘학업중단 이후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앞으로의 계획’ 12개의 영역이 만들어졌는데, ‘학업중단 이전 상황’과 ‘학업중단 배경’은 ‘학업중단의 배경’으로, ‘학업지속 개인 요인’, ‘학업지속 환경 요인’은 ‘학업지속 요인’으로 ‘자퇴하고 싶은 애들에게 조언’, ‘학업중단 이후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학업중단과 복귀과정에서 배운 점’으로 통합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은 특정 학과를 진학하고 싶다는 면접 내용이어서 학업복귀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거리가 있어 영역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최종 영역이 8개로 선정되었다.

### 핵심개념

합의팀은 모든 사례를 영역별로 정리한 후,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핵심개념을 구성하였다. 이때 핵심개념은 가능한 연구진의 추론을 배제하고 참여자들의 단어로 나타내도록 노력하였다.

### 영역과 핵심개념의 감수 및 감수 내용 합의

12사례의 영역과 핵심개념은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작성된 축어록과 합의팀의 영역과 핵심개념을 확인하는데, 이때 감수자는 원 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핵심개념이 간결하고 원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감수자가 지적한 내용은 합의팀의 합의를 거쳐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수정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였다.

### 교차분석과 교차분석 감수

12개의 사례 중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10개 사례의 핵심개념을 검토하여 범주를 만들었다. 이러한 교차분석 자료를 다시 감수자에게 감수를 받았다. 이때 감수자는 각 영역의 핵심개

념을 읽고 범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핵심개념들이 적절하게 범주화 되었는지 검토해 주었다. 합의팀은 감수자가 지적한 내용과 의견은 합의팀의 토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그대로 유지하였다.

### 안정성 점검

교차분석을 마치고 교차분석에서 제외되었던 2개의 사례를 추가하여 범주의 빈도변화나 새로운 범주나 영역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결과에 대한 안정성이 점검되었다.

## 결 과

모든 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general*), 7사례~11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 3사례~6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variant*)

### 학업중단의 배경

학업중단의 배경은 5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전형적), ‘열악한 가족 환경’(전형적), ‘노는 친구들과 어울림’(전형적), ‘친구관계의 어려움’(전형적), ‘심리적 불안정’(드문)으로 나타났다.

###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가방검사, 두발검사 등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엄격한 학교규율과 교사의 폭행 등으로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자퇴를 결심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제 자신한테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가면 뭐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충동적인 거 아닌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고등학교를 왔는데 너무 학교가 폭력적이기도 하고 틀 안에서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제 못 있겠다 지금 계속 이렇게 있다고 쳐



표 3.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 결과

영역	범주	사례빈도	
학업중단의 배경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전형적(10)	
	열악한 가족 환경	전형적(10)	
	노는 친구들과 어울림	전형적(8)	
	친구관계의 어려움	전형적(7)	
	심리적 불안정	드문(6)	
학업중단의 결정적 계기	가출과 출석일수 부족	전형적(9)	
	대인관계 갈등 심화	드문(6)	
	규율위반으로 징계 받음	드문(3)	
학업중단 당시의 느낌	부정적 느낌: 허탈감, 화, 소외감	전형적(10)	
	긍정적 느낌: 편하고 좋다	드문(4)	
학업중단 후 생활	불규칙한 생활	전형적(8)	
	관계단절과 사회적 철수, 갈등	전형적(8)	
	취업과 아르바이트	드문(6)	
	문제행동의 악화	드문(4)	
학업복귀 결정 요인	학력/졸업장에 대한 인식 변화	전형적(10)	
	주위사람들의 권유	전형적(8)	
	자신의 결심과 정보탐색 노력	전형적(7)	
	가족의 권유	드문(6)	
	상담자의 지지적 역할	드문(3)	
학업복귀 후 겪는 어려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드문(6)	
	생활습관 바꾸기	드문(4)	
	공부/수업 따라가기	드문(4)	
학업지속 요인	본인의 의지와 노력	일반적(12)	
	개인의 노력과 변화	장래에 대한 꿈과 계획	일반적(12)
		공부방법을 익혀 학습에 대한 흥미 향상	전형적(8)
		자기관리 능력의 향상	전형적(7)
		좌절 극복 및 성공 경험	드문(6)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	정서적 지지와 자극을 주는 친구	전형적(10)
		상담과 멘토링	전형적(10)
		가족과의 관계 개선	드문(4)
주위 사람들의 도움		드문(4)	
학업중단과 복귀 과정에서 배운 점	학업중단과 복귀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했다	전형적(10)	
	자퇴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드문(6)	
	고생을 겪어봐야 철이 든다	드문(4)	
	학교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	드문(3)	

도 졸업장을 쉽게 받아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례 1)

“그냥 맨날 시도 때도 없이 가방, 가방 검사하고 검사하는 게 싫었어요. 앞머리도 눈썹 보이게 찌르라고 했어요. 진짜로요. 머리... 머리 색깔도 자연갈색인 사람 있잖아요. 염색도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염색했다면서 검은색으로 염색해오라고.” (사례 11)

### 열악한 가족 환경

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술주정, 엄마의 가출, 아버지의 외도, 엄마의 우울증 등으로 어려운 가족환경 속에서 가족의 든든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아빠가 성격이 나긋나긋한 성격이 아니라, 좀 막 이렇게 화날 땐 엄청 화나는 성격이고, 또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안 맞는데 고1때까지는 계속 맞았던 거 같

아요” (사례 7)

### 노는 친구들과 어울림

참여자들은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담배 배웠고, 또한 사고를 치면서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거나 노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저 학교에서 사고를 안쳤어요. 학교에서는 평범했어요. 나쁜 짓은 많이 했어도 제가 이단이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밖에서 사고를 치고 왔어요. 정말 전국에서 안 돌아 다녀 본 데가 없어요. 다 돌아다녔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고 친 게요 서울 경찰서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례 3)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춘기를 맞으면서 많이 놀고 싶었어요.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많이 놀고 싶어 했고 멋도 막 부리고 싶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좀 옛날분이세요. 고지식하시고. 그런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짧은 미니스커트에 귀 뚫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호기심에 그냥 술, 담배를 했는데 호기심에...”(사례 5)

### 친구관계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친구들의 따돌림과 배신으로 충격을 받거나 친구관계가 어려워져 학교 다니면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안 좋은 소문으로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지거나 친구들과 맞추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 때 저까지 여덟 명이었는데 되게 개네가 있어서 나는 살 수 있고 개네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가족보다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떤 한 명과 저랑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못 이겨서 제가 완전 그 나머지 여섯 명을 다 데리고 간 거죠. 저를 제 곁에서부터 데려가니까 일곱 명이 저를 따돌린 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개랑 싸웠죠” (사례 1)

“여자애들은 막 얘기하고 그런 쪽이잖아요. 맞춰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장난쳤는데 애들이 그것 때문에 뒤에서 막 욕을 하고 그런 거예요. 친구 다른 애한테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부터 막 애들이랑 얘기도 별로 안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사례 9)

### 심리적 불안정

참여자들은 가족, 친구,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거나 개인적인 방황과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그러니까.. 하도 힘들어가지고.. 자살.. 행동 하다가.. 그냥 거기 의사가 입원하면은 빨리 치료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자원으로.. 입원도 했었고...” (사례 8)

### 학업중단의 결정적 계기

학업중단의 결정적 계기는 3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가출과 출석일수 부족’(전형적), ‘대인관계의 어려움’(드문), ‘규율위반으로 징계 받음’(드문)으로 나타났다.

#### 가출과 출석일수 부족

참여자들은 온갖 사고를 쳐 도망을 다니거나 가출 등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자동 퇴학되거나 참여자가 학교에 가지 않아 학교로부터 자퇴를 종용받음으로써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징계 좀 먹다가 그것도 계속 도망 다녀가지고 퇴학당했어요. 도망 안 다녔으면 퇴학은 안 당 했어요.”(사례 4)

“다른 애들은 제가 뭐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는데 속으로는 적응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졸랐는데 아빠께서는 제가 계속 동해에 남아있기를 원하셨고, 그 마찰이 빚어져서 제가 가출을 했어요. 동해에서... 그렇게 가출을 하고 떠돌아다니다 보니깐 출석일수가 모자라서 자동으로 제가..” (사례 5)

#### 대인관계 갈등 심화

참여자들은 사고 쳤다고 학교와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 부담스러웠고 학교선생님의 화내는

표정과 때리는 것이 싫었다.

“하루 다녔어요. 근데요 학교를 들어갔는 데 보는 시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만두고 왔다는 시선이...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원래 소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개 안 좋은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애는 여자 꿈무니만 따라 다닌다 이런 소리만 항상 들으니까요.” (사례 3)

**규율위반으로 징계 받음**

참여자들은 입학 때부터 담배 못 끊어 학교에서 경고를 받다가 자퇴를 하거나 학교에 노는 아이로 찍혀 자퇴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담배를 못 끊어요. 그래서 담배를 한 네 번도 정도 걸리니깐...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사례 5)

“담배가 걸려서 했는데, 원래 발바닥을 때리거든요. 눕혀가지고, 그 때 아빠가 오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학주가... 아빠가 저를 딱 보고, 교무실로 들어갔는데, 학주가 아빠한테 재가 있으면 공부하는 애들까지 물을 흐릴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퇴도장 찍고 나와서 아빠랑 집 가고...” (사례 7)

**학업중단 당시의 느낌**

학업중단 당시의 느낌은 2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부정적 느낌 : 허탈감, 화, 소외’(전형적), ‘긍정적 느낌 : 편하고 좋다’(드문) 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느낌 : 허탈감, 화, 소외감**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후 자신들이 뭘 할지 몰라 답답했고 무료한 느낌을 가졌으며, 다른 애들은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는 상황에 소외감이 느끼고, 밖에 나가기 싫고, 교복 입은 애들을 보면 움츠러들었고 자존심이 상하였고 열등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때 그만두고, 너무 좌절에 빠졌어요. 너무 허탈했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렇게 된 이상 상관은 없겠고, 너무 사람이 우울해져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사례 5)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소외감도 느껴지고.” (사례 8)

**긍정적 느낌 : 편하고 좋다**

참여자들은 학업을 중단했을 때 처음에는 부모님께 미안했지만 놀아서 좋았고 이제 늦잠을 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냥 엄마아빠한테 미안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학교 그만 둔다는 거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 좋았어요.” (사례 3)

“그때는 이제 편히 늦게까지 자겠구나 많이 놀겠구나 그런 생각했었죠... 한 7일 정도는 PC방 같다가 막 술 먹고 그랬는데요.” (사례 6)

**학업중단 후 생활**

학업중단 후 생활은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불규칙한 생활’(전형적), ‘관계단절과 사회적 철수, 갈등’(전형적), ‘취업과 아르바이트’(드문), ‘문제행동의 악화’(드문)로 나타났다.

**불규칙한 생활**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후 매일 집에서 컴퓨터만 하거나 TV를 보면서 지내거나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보고하였다. 밖에 나가 밤늦게까지 술먹고 노는 등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잠을 자고, 아침에 나가서 놀잖아요. 그러면 밤이 되도 오기가 싫은 거예요.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있는 게.” (사례 7)

“처음에는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랑 겁고

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때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냥 주위에 자퇴를 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네들은 학교도 안다니고 검정고시도 안했거든요. 아 저렇게 해도 되거나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삶의 이유를 두지 않고 살았던 거 같아요. 그냥 몸 가면 가는 데로 마음 가면 가는 데로 그렇게 살다가 정 안되겠다 싶으면..." (사례 10)

### 관계단절과 사회적 철수, 갈등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후 생활이 이전보다 좋지 않자 가족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친구들 또한 잘 만나주지 않아서 배신감이 들었으며, 사람들 만나기조차 힘들었다.

"가족이랑 엄청 싸웠죠. 3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3년에 6개월에 한번씩 들어가고 하루 정도.." (사례 3)

"제가 또 나갈 방법은 있더라구요. 엄마 아빠가 안방 문을 잠가놓은 거예요. 제 가방이랑 버스카드, 핸드폰을 다 안방에 놓고 근데 그 안방에 베란다를 나가면, 안방 창문이 있거든요. 유리를 깰려구요, 망치를 꺼냈었었요.." (사례 7)

### 취업과 아르바이트

참여자들은 남은 시간에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는데, 주로 주유소, 서빙, 편의점 등에서 일을 하였다.

"공장을 제가 아는 분들 소개 해가지고 아는 한 분은 제 친구 아버지도 그렇고 세 군대를 돌았어요. 한 군대는 이제 제 친구 누나, 초등학교 때 친구 누나가 다니는 00전기에 처음 갔어요." (사례 12)

### 문제행동의 악화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후 기출해서 좋지 않는 길로 빠져들거나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냥 집 밖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애들하고 맨날 나가 놀고, 맨날 술 먹고."(사례 5)

### 학업복귀 결정 요인

학업복귀 결정 요인은 5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학력/졸업장에 대한 인식변화'(전형적), '주위 사람들의 권유'(전형적), '자신의 결심과 정보탐색 노력'(전형적), '가족의 권유'(드문), '상담자의 지지적 역할'(드문) 로 나타났다.

### 학력/졸업장에 대한 인식 변화

참여자들은 자격증과 졸업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로는 평생직장이 되지 못하며,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면 사회에서 별로 좋지 않게 볼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저희가 친구끼리 어느 날 술을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군대얘기가 그때 나와요. 그러면은 중학교 졸업하면 못 간다고 나중에 커서 군대 얘기할 때 혼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야 된다고 그럼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 되면 그 자리에 못 있을 것 같고 학교만 그만뒀지 남들이랑 똑같이 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지려고 노력은 해봐야죠." (사례 6)

"고등학교 졸업도 안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개.. 한심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자퇴하고 항상 그런 생각은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얼마나, 요즘에 대학 나와도 그런데." (사례 7)

### 주변사람들의 권유

참여자들은 친구의 친척 형, 교회 목사, 고모, 친척 언니, 아르바이트 공장 어른들 등 다양한 주변 사람들의 학업복귀 권유를 받았다.

"교회는 목사님이 생겼다고 한 번 가보자고 하셔서.. 음.. 중학교 새로 오셨어요. 목사님이요. 중3 때 동생이 수련회 갈 때 따라갔거든요. 그때 거기서 만났어요." (사례 4)

"고모네 집에서 지냈는데 고모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중학교 그런 거는 따야 된다고' 계속 고등학교까지 따야 된다고.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따야 된다고. 요즘엔 대

학교도 기본인데 하물며 고등학교까지 졸업 못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확실히 학교 나온 사람이랑 안 나온 사람이랑 차이가 천지 차이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사례 5)

### 자신의 결심과 정보탐색 노력

참여자들은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정고시나 학교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 보았다.

“중학교 그만두고 아.. 중학교 3학년 끝나고 한 일 이년 때 쯤에 제가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례 3)

“남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6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6년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공부하고, 검정고시도 뭐 한 6개월? 1년? 그 정도 밖에 안 했으니깐 남들보다 빨리 있는? 그런 열등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학구열이 불타올랐어요.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 남들한테 뒤쳐진 만큼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대학을 생각했죠.” (사례 5)

### 가족의 권유

참여자들은 졸업을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한다고 부모님, 할머니, 오빠 등 가족의 학교 복귀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부모님들이랑 친구 막 부모님들이 막 계속 검정고시 따라고 그것만 하고 인제 니 할 거 하라고 그래 같고 좀 주변에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례 6)

### 상담자의 지지적 역할

참여자들은 상담선생님이 엄마로 여겨질 정도로 편안했고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었으며, 상담자로 인해 자신이 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00 쌤이 맨날 내가 너 두 번째 엄마라고, 친엄마가 인천에 있거든요 내가 너 두 번째 엄마라고 맨날 그러고 쌤은 그게 다 경험이라고 말해주는데, 다른 사람들 아빠는 막 넌 진짜 막 혼내기만 했는데, 쌤은 막 그렇게 말해주니까.” (사례 7)

### 학업복귀 후 겪는 어려움

학업복귀후 겪는 어려움은 3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드문), ‘생활습관을 바꾸기’(드문), ‘공부/수업 따라가기’(드문)로 나타났다.

#### 주위사람들과의 관계

참여자들은 예전에 같이 놀던 애들이랑 연락을 끊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힘들고, 학교를 동생들과 다녀야 하는 것이 창피하며, 선생님들이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런 거 이제 학교를 돌아가면 일단 학교 가겠다는 결심을 하긴 했지만, 아 학교가면 내가 잘 다닐 수 있을까, 아.. 학교가면 더 힘들겠다. 내 친구들은 다 졸업했는데 아 잘 다닐 수 있을까 아 창피해 이런 것. 그리고 학교 한 번 갔을 때 선생님들의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또 안 좋은 눈으로 보면 힘들게 나올 것 같은데 아 싫다. 일단 겁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거진 다 사립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안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데 간혹 가다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사례 12)

#### 생활습관을 바꾸기

참여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술, 담배 끊는 것이 힘들었다.

“한 시 넘어서 자요. 한 다섯 시에 잔 적도 있구요. 그리고 세시? 세 네 시에 일어나요.” (사례 4)

#### 공부/수업 따라가기

참여자들은 공부를 처음 해보니 이해가 안 되어 힘들었고, 집중력과 공부하는 습관이 잘 잡히지 않아 공부와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웠다.

“공부를 처음 해보니깐 막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게 엄청 힘들었어요” (사례 7)

## 학업지속 요인

학업지속 요인은 ‘개인의 노력과 변화’와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이라는 2가지의 하위분류로 나뉘었다. ‘개인의 노력과 변화’는 다시 5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는데, ‘본인의 의지와 노력’(일반적), ‘장래에 대한 꿈과 계획’(일반적), ‘공부방법을 익혀 학습에 대한 흥미 향상’(전형적), ‘자기관리 능력의 향상’(전형적), ‘좌절 극복 및 성공 경험’(드문)이었다.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도 다시 4가지의 범주로 분류되었는데, ‘정서적 지지와 자극을 주는 친구’(전형적), ‘상담과 멘토링’(전형적), ‘가족과의 관계 개선’(드문), ‘주위사람들의 도움’(드문)으로 나타났다.

## 개인의 노력과 변화

### 본인의 의지와 노력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공부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스스로 꼭 학업을 지속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제가 굳이 성격을 참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여기서 이루고 해야 된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공부는 스스로 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저도 스스로 하고 싶어요.” (사례 2)

“계속 음.. 앉아 있었죠. 계속 앉아서 보고 있었죠.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죠.” (사례 4)

### 장래에 대한 꿈과 계획

참여자들은 요리사, 군인, 상담선생님, 대학진학 및 취업 등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 조리과 있잖아요. 호텔 조리과 아니면 영양 막 그런...” (사례 6)

“이 학교 졸업하면.. 자격증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공무

원 시험도 보고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에 걸맞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힘들어도 뭐 옛날 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사례 9)

### 공부방법을 익혀 학습에 대한 흥미 향상

참여자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써서 외우거나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점점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혼자서 역부족일 때는 학원을 다녔다.

“검정고시 시험문제들요 종이예다 쓰는 거 예요 답까지 다 열 번 쓰고 나서 풀면 다 알겠더라고요.”(사례 4)

“그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를 맨 처음에 한 번 풀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 있죠. 그거를 다 다시 한 번씩 쓰요. 그 다음에 책을 보면 나왔던 문제니깐 되게 밑줄 굵게 되는.”(사례 6)

### 자기관리 능력의 향상

참여자들은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담배를 끊었고, 비록 작심삼일, 집중력 없었지만 검정고시도 통과하고 자격증도 땀으며, 지각을 해도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런 거 느꼈으니까 선생님도 보답 해줘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담배 같은 끊고 술 같은 거 끊었어요.” (사례 2)

“음.. 그러니까 학교 안 갈 때는 자고 컴퓨터 학교 나올 때는 그냥 일어나서 열심히 학교 와서 수업 듣고 그 다음 일요일 날 교회 가고 토요일에도 교회 가고” (사례 4)

### 좌절극복 및 성공경험

참여자들은 학업복귀 후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 성공경험을 보고하였다. 즉, 검정고시에 떨어져 낙담했지만 다시 도전하여 합격하였으며, 각종 자격증을 따면서 자신감을 얻었으며 대학까지 진학 하였다.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그리고 일도 하고, 그 직업 체험

하는 애들, 상담하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직업체험 조지어서 하고, 네일아트 하고, 제과제빵 학원도 다녔어요. 고2때 그 학원을 다녀서 제가 좀 빵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신기했던 게, 필기랑 실기를 다 한 번에 붙은 거예요.” (사례 7)

###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

#### 정서적 지지와 자극을 주는 친구

참여자들은 학업을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주고, 시험보기 전 한달 동안 공부 잘하는 친구와 도서관 다니며 함께 문제집을 풀면서 행복하고 좋은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3월까지 놀고 공부하나도 안 한거예요. 이대로 안되겠다 해갔고 공부 좀 중학교 때 공부 잘 하는 친구가 고1때 아빠한테 맞아갔고 처음으로 맞아갔고 학교를 그만둔 애가 있어요. 개랑 같이 공부하면은 이번에 붙을 수 있겠구나 해갔구...”(사례 6)

“저희 반 애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따로 만나서 술 마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꼭 성공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성공하자!” (사례 12)

#### 상담과 멘토링

참여자들은 고민이 생기면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고 뭔가를 잘못하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참여자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좋았고, 이전에 참여자들이 잘못된 것들은 다 경험이라고 말해주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아.. 고등학교 때 진짜 고민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대학에 갈까? 어떻게 갈까? 언제 갈까? 무슨 과를 할까 생각하고 방향하고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가 컸어요. 진짜. 그때 OO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직업 관련 사이트도 알려주시고 어떤, 어떤 직업들이 있다.” (사례 5)

“학원도 이제 못가네 이라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학원 안 오느냐고. 선생님한테 저 학원 끝났지 않냐고 그러니깐 선생님이 저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공부 열심히

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막 그런 의도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했죠.” (사례 6)

#### 가족과의 관계 개선

참여자들은 가족 생각하면 과거에 사고 친 게 미안하고 자랑할 거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며, 학교를 나간 이후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니까 제가 일을 하고, 제가 떳떳이 있으면 오히려 아빠가 저를 더 챙겨주고 그래요. 막 일 잤다오면 힘들지 이려고 밥 차려주고, 차라리 저는 제가 막 힘들고 이리더라도 집에서 떳떳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사례 7)

#### 주위사람들의 도움

참여자들은 고모, 친구 삼촌, 언니, 친구 등 주위의 사람들이 이끌어 주고, 참여자들에게 잘 할 수 있다, 성공할 것 같다고 말해준 것이 학업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친구들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 해주셨는데 개네들은 잔소리로 생각한 거예요. 삼촌이 그럼 니네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으래요. 그래서 저는 저랑 그 삼촌 조카 있잖아요. 삼촌이 재네는 좋은 말을 해줘도 모른다고, 좀 철이 들려면 멀었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뭔가 재네랑 다르다. 잘 할 수 있다고 나중에 이런 힘이 되는 얘기 있잖아요. 너는 꼭 성공할 것 같다고 라던지 진짜 잘 될 것 같다.” (사례 6)

#### 학업중단과 복귀 과정에서 배운 점

학업중단과 복귀 과정에서 배운 점은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학업중단과 복귀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했다’(전형적), ‘자퇴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드문), ‘고생을 겪어봐야 철이 든다’(드문), ‘학교 다니는게 훨씬 편하다’(드문)로 나타났다.

### 학업중단과 복귀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했다

참여자들은 학업중단과 복귀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했다고 자각하고 있었다. 이 범주는 전형적(10사례) 사례에서 나타났으며 미래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히고 노력해야 한다는 통찰과 가족이나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자신감 등을 보고하고 있었다.

“저는 오히려 그 당시 생각은 ‘아 놀건 다 놀아봤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놀게 없다. 다 놀아봤으니깐. 그리고 더 이상 그 당시 제가 했던 것은 놀았다고 안 해요. 이제 진짜 노는 것은 여행을 간다던가, 해외여행 이런 게 노는 거지, 더 이상 애들이랑 모여서 술 먹고 노는 것은 노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노는 인생으로 살아 왔다면 이제는 바꾸자, 다른 인생을 살자, 공부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뭐 이런 인생을 살자... 뭔가가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례 5)

“이번에 형도 이번에 졸업반인데 2년제 근데 또 편입한다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 제 제가 벌어서 가족한테 꽤 끼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은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사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막 이제는 가족 생각하면은 다 하고 싶어져요.” (사례 6)

### 자퇴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정말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그만 두지만 학교를 그만둘 때는 구체적으로 자퇴 후를 생각할 것을 조언하였다.

“저는 이걸 꼭 필수인데. 하기 싫거나 자퇴한 애들 보고 부럽다는 식으로 생각할 거면 절대 자퇴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없어서 4년을 고민한 앤데. 그런 애가 자퇴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오히려 나도 자퇴했을 때 유연으로 여기 오게 된 거지만, 그 후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후를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중단하는 게 낫지. 찾지도 않고 나가면 다 잘 될거야라는 그런 자만심은 가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죠.” (사례 1)

### 고생을 겪어봐야 철이 든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경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고생을 해봐야지 철이 든다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 그냥 지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그걸 알아봐야, 그러니깐 놀기 좋아하고 그런 애들은 어른들이 ‘너는 지금 공부해야 된다, 어쩐다’ 그렇게 말해도 안 통하잖아요. 그냥 놔두고 나중에 가서 지가 후회하고 느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사례 11)

### 학교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

참여자들은 학교 그만두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고생이 많으니 학교 다니는 게 훨씬 편하고, 진로도 편하다고 조언하였다.

“학교 잘 안다니면 친구관계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런 걸 많이 못 하잖아요. 학교 그만두면 후회 엄청 되니깐. 한 번 후회 제가 해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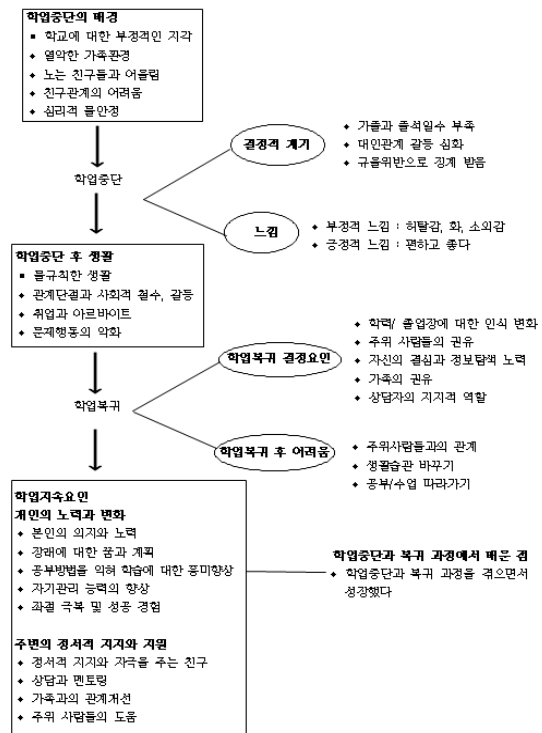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 경로



을 겪을 거라 생각하면은 웬지 모르게 좀 안. 불쌍해 보이  
고” (사례 6)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후 학교(대안학교 포함)나  
검정고시 등 학업에 복귀한 청소년 12명을 면접하여  
성공적인 학업복귀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면접 내용  
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학업중단부터 복귀 후 적응  
과정 경험을 학업중단의 배경, 학업중단의 결정적 계  
기, 학업중단 당시의 느낌, 학업중단 후 생활, 학업복  
귀 결정 요인, 학업복귀 후 겪는 어려움, 학업지속 요  
인, 그리고 학업중단과 복귀 과정에서 배운 점 등 8  
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전형적인  
특징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한 후 시사점과 한계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전 청소년들의 상황은 학교와 가정  
안팎으로 편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대  
한 지각은 폭력, 불공평, 심한 규율과 같이 부정적이고,  
따돌림과 같은 친구관계의 어려움, 노는 친구들과  
어울린 문제행동 등이 전형적이었다. 가정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의 구조적 결손, 폭력이나 방치 등의  
기능적 결손으로 편안하지 않은 환경이었다. 본 연구  
대상들은 고등학생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가 엄격한  
학교생활 부적응도 있지만 학습부진 및 학습기피나  
검정고시 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김성기(2009)  
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가출과 출석일수 부족이 학업  
중단의 결정적 계기였고, 드물게 규율위반으로 징계  
를 받거나 대인관계 갈등 심화 등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퇴 청소년 대부분이 가출로  
인한 무단결석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자퇴처리 되었다고 보고한 차은선(1998)의 결과  
와 동일한 것으로 학업중단의 사유나 배경이 10여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업중단 후의 전형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느  
낌이었다. 허탈감과 아쉬움, 분노와 짜증, 소외와 위  
축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었다. 이후의

생활은 낮과 밤이 바뀌고 ‘몸 가는대로 마음 가는대  
로’ 사는 불규칙한 생활, 사회적인 관계는 단절되고  
가족과의 갈등이나 문제행동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  
다. 그러는 동안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겪다가 어느 시점  
에서 학업복귀를 결정하게 되는 데는 학력과 졸업장  
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졸업은 해야 한다는 주위 사람  
들의 권유, 그리고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이 중요한 역  
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  
면 무시당할 것이다, 한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군대  
도 못갈 것이다, 손가락질 할 것이다라는 등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다른 학업중  
단 청소년이 사는 모습이 타산지석이 되거나, 안될거  
라고 하는 부정적 시선에 더 오기가 생겨 검정고시에  
도전하였다는 등의 내적 변화도 보고되었다. 10여년  
전에 중도탈락 후 재입학한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연구에서 송현중(1998)은 이들이 학교밖 생활을  
통해 얻은 유일한 교훈은 ‘졸업장’이라는 형식이 필요  
하다는 것, 졸업장은 ‘사람대접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의 형식 이상의 의미는 없으며 재입학생  
들의 목적은 ‘간판으로서의 졸업장 획득’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말하  
는 졸업장의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드물기는 해도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미  
래에 대한 조망이 생기고, 다르게 살고 싶다는 내적인  
변화 동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업복귀 후 어려움은 있었다. 노는 친구들과  
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의 어려움, 낮  
과 밤이 바뀌고 책상에 앉아있기 어려운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모두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학교복귀 후에도 여전히 학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인간관계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며, 고통  
스러운 수업시간과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학교 밖 생  
활을 한다는 송현중(1998)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크게

개인의 노력과 변화,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모두 '하기 싫더라도 참고', '땀땀하고 싶었고',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할머니 때문에라도 참자고 결심하고', '마음잡고 정신차리고' 등 스스로 참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진학과 직업에 대한 꿈과 계획을 말하였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부 방법이 익혀지고, 일찍 일어나거나 금연을 하는 등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검정고시 실패나 문제행동 등의 좌절을 극복하고 나오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혼자 버틴 것은 아니었다. 친구, 가족, 멘토, 상담자, 주위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안에는 가족(아버지, 엄마, 언니..) 친구, 이성친구, 상담 개입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 상담자,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고모, 친구 삼촌, 친척 언니, 교수님, 목사님, 친구의 친척 형, 공장의 반장님 등 매우 다양한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적응과 자기관리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업복귀 청소년들이(Franklin, 1992) 끝까지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회적 지지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학업중단과 복귀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철이 들거나 성장했다고 지각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여러 경험을 통해 '학교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 학교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학업중단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였지만, '스스로 겪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때는 말을 해도 소용없다. 겪을만큼 겪어야 한다. 결국 스스로 겪고 후회해보고 느껴봐야 철든다'라며 겪은 만큼 성장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격랑기를 '결국 후회하더라도 스스로 겪고 느껴봐야 철이 드는' 과정을 이들이 몸으로 겪어왔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줄 알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과거를 돌아보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 조금은 자란 자신을 발견하게 되

었다. 그렇지만 자퇴를 원하는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과정은 아니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성공적으로 학업으로 복귀한 청소년 심층면접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업중단과 복귀 과정을 하나의 발달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중단의 이유는 대인관계 문제, 부모와의 불화, 정신건강 문제, 출석 일수의 부족 등으로 다양하지만 그 배경에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모와 가정의 문제, 학교의 엄격한 규율과 규범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청소년기의 충동성, 빈약한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능력, 부정적 감정에 대한 빈약한 대처방식 등과 맞물려 비행이나 가출로 표출되고 결국 출석일수 부족으로 자퇴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더 이상 교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 낮에 학교 밖을 배회하는 자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의식되면서, 학력중심 사회에서 졸업하지 못한 것은 낙인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며 미래에 대한 조망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이 끝이 아니라 복귀 후 적응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발달경로로 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학업복귀를 원하지만 동기나 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각 단계마다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달과업을 성취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인 지지망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활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는 청소년 한 명이 학업의 장으로 돌아가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족과 또래친구는 학업중단의 촉발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같은 처지의 친구가 함께 뜻을 세우면 정서적인 지지원이 되어 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에 만나는 주위사람들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길을 제시해주는 어른에게 힘을 받아야 자신의 의지와 노력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점

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확인과 활용, 빅브라더 빅씨스터와 같은 멘토 활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집단 프로그램과 함께 일대일 개인상담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상처를 들어주고 알아주었던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충동적으로 미래에 대한 충분한 조망이나 계획 없이 학업중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댓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였고, 적절한 때 상담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상담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버텨주고 순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갈등관계인 부모와 청소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해줄 수도 하며 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

넷째, 학업복귀 청소년의 적응에는 무엇보다도 기초학습 지원과 미래조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은 학업복귀를 결심하였어도 실제로 학습방법을 모르거나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옆에서 붙잡고 하나하나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하며 도와줄 사람 등 기초부터 차근차근 도와줄 멘토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업중단 당시의 허탈감, 분노와 짜증, 소외감과 위축감, 우울 등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학업중단 상태가 오래 되면 좋지 않으니 초기에 잡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이는 부정적인 정서의 조절능력 습득이 이후의 적응과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은 체험이나 활동을 통해 몸으로 느끼고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학업복귀의 계기와 학업지속요인으로 졸업장에 대한 인식 변화, 가족, 친구, 상담자를 포함한 주위의 권유, 본인의 의지와 노력, 장래에 대한 꿈과 계획 등을 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보다 직업체험이나 여행을 통해 스스로 겪으면서 배우고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다니는 것보다는 빠터린 사회 경험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서 몸으로 겪으면서 배운 것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면 여행이나 실제 일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체험활동이 될 것이다. 직접 체험이 아니더라도 사이코드라마나 소시오드라마는 학업 복귀 이후에 부딪치게 될 자신과 환경적인 도전을 미리 경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학업복귀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임을 인식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검정고시의 경우, 쉽게 합격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몇 차례에 걸쳐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직업체험에서의 작은 성공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불고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담배를 끊고, 노래방에서 놀아도 공부가 걸리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지각을 하더라도 결석은 하지 않으며, 스트레스가 쌓이면 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등의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학업복귀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좌절이나 실망스러운 상황을 통제하는 자기 관리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학업복귀의 개념을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교 복교로 보고 이들의 학업복귀 경험과 학업복귀를 지속할 수 있었던 보호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 과정으로 들어간 청소년들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가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로 이어지는 하나의 발달과정으로 보고, 학업복귀를 위한 개입프로그램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학교 복교 혹은 남녀의 각각의 경험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제한점을 찾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대상을 특성화 하여 대안학교의 경험이나 검정고시 준비과정이나 합격까지의 경험을 좀 더 세밀하게 탐구하고 이들의 독특한 경험과 생생한 느낌, 이들을 돕기 위한 상담전략 등이 발견되면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기홍 (2003).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와 상담적 개입 방안.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4, 117-136.
- 고용노동부 (2009). **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서울: 고용노동부.
- 권이중 (2010). **학업중단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통계서비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1996). **1996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7).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 **교육월보**, 181(1), 53-61.
- 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육통계연보**.
- 구분용 (2002).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특성과 상담 개입 전략,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구분용, 신현숙, 유제민 (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2), 35-57.
- 구자경 (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09-330.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학교박청소년 욕구조사. 학교박청소년 길찾기,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50**.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 (2005). **학교박청소년 평가도구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경식 (1997). 중·고교 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외 생활 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7(3), 115-138.
- 김선아 (2010). **학업중단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 김성기 (2009). **학업중단청소년 종합지원대책 토론회**.
- 김은희, 이정숙 (2010). 컴퓨터에 거주하는 십대 미혼모의 희망 체험: Parse의 연구방법론 적용. **정신간호학회지**, 19(1), 44-56.
- 김준호, 박정선 (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 (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16(3), 465-490.
- 김혜경 (2010).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2(2), 329-349.
- 김혜영 (2001).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삶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나혜진 (2009). **고위험 집단 청소년에서 희망과 스트레스 대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 (2009).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비행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익수 (2003).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분석**

-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창남 (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한국청소년개발원.
- 박현선 (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배영태 (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두드림존 프로젝트**.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부산청소년상담지원센터 (2011). **학업중단청소년 복교 프로그램 ‘학교가는 길’ 심성수련교육 프로그램**. 부산: 부산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성운숙 (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성운숙, 박병식 (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광성, 구정화, 이명아, 김소희 (1992).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현중 (1998). 재입학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연구. **대학상담연구**, 9(2), 71-102
- 신은희 (1999). **대안 학교 교육과정의 실태 및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호진, 노충래 (2007).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문제행동 비교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199-229.
-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오승근 (2009).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비판적 고찰.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21.
- 유성경, 이소래 (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상, 조혜영 (2003).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 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전숙 (2001).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성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 (2006).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탄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 (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 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치열 (2010).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전망. **교육생각**, 봄호(2010.03.17).
- 장은혜 (2009). **희망, 진로장벽, 성취목표가 일반청소년과 시설청소년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희 (2005).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퇴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운숙 (2002). **가출 청소년의 회귀과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연, 이미리, 박은미 (2009). **학업중단청소년. 아동학회지**, 30(6), 1-13.
- 조영승, 구분용, 신현숙 (2001).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연구**. 경기: 경기도교육청.
- 조용환 (1998). **대안학교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1), 113- 155.

-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 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영아 (2002). **복교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아, 정현희 (2002). 복교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10(1), 127-146.
- 차은선 (1998). **복교 청소년의 학교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동선, 이상준 (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표갑수 (1993). 중, 고등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청소년학연구*, 1(1), 127-147.
- 한겨레신문 (1997). 1997. 10. 1일자 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방안**.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맞춤형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기순 (2010).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기독교대안학교 중고생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5(3), 327-356.
- 홍성희 (2001).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ompas, B. E., Hinden, B. R.,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s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Dupper, D. R. (1993). Preventing School Dropouts; Guidelines for School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in Education*, 87(3), 141-149.
- Franklin, C. (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 youths, *Social Work*, 37(4), 338-343.
- Grant, K. E. & Compas, B. E. (1995). Stress and anxious-depressed symptoms among adolescents: Searching for mechanisms of risk.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6), 1015-1021.
- Grunbaum J. A., Lowry R, Kann L, & Pateman B. (2000). Prevalence of Health Risk Behaviors Among Asian American/Pacific Islande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5), 322 - 330.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anford.
- Jancek, R. (1999). *High school drop out factors and effects: An analysis of a small school in rural Illinois*, ED, 435-521.
- Kann, L., Kinchen, S. A., Williams, B. I., Ross, J. G., Lowry, R., Hill, C. V., Grunbaum, J. A., Blumson, P. S., Collins, J. L. & Kolbe, L. J. (1998). Special Report.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United States, 1997. *Journal of School Health*, 68(9), 355-69.
- Masten, A. S., & Reed, M. G. J. (2002). *Resilience in development*.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74-8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raita, C., & Pastor (2000). The Primary School Dropout in Spain: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 and Labor Market Conditions. *Education Economics*, 8, 157-169.
- Ross, J. G., Saavedra, P. J., Shur, G. H., Winters, F., & Felner, R. D. (1992). The effectiveness of an after-school program for primary grade latchkey students on precursors of substance abus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OSAP Special Issue), 22 - 8.

Rumberger, W. R. (1983). Dropping out of high school: The influence of race, sex, and family background.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2), 199-220.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Knopf.

Wittenberg, S. K.(1988). *Youth at risk: Who are they,*

*why are they leaving, and what can we do.* Philadelphia: Falmer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1. 0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0. 26.

게 재 결 정 일 : 2011. 11. 08.

부록

영역	범주(빈도)	내용
학업 중단 배경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방식이 너무 싫었고 사람을 막대하고 때리고 욕했음</li> <li>· 학교에 출석만 하면 되고 돈과 가족이 있는 애들에게만 잘 해줌</li> <li>· 학교가 맞지 않음</li> <li>· 선생님의 화내는 표정이 싫었음</li> <li>· 진정한 학교라면 담배 끊을 수 있게 도와줘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li> <li>· 학교 규율이 안심할 줄 알고 진학했는데 걸린 게 많음</li> <li>· 고1 새 환경에 적응을 못했음</li> <li>· 학교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음</li> <li>· 가방검사, 앞머리도 눈썹 보이게 자르게 하고 염색했다고 오해하는 것이 싫었음</li> <li>· 그냥 학교가 싫었고, 애들 잡을 때 때리니까 무섭고 싫었음</li> </ul>
	열악한 가족 환경(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아 부모랑 떨어져서 할머니와 삼</li> <li>·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엄마가 집을 나갔고 가족들과 싸움</li> <li>· 부모 이혼으로 강제로 아버지와 친할머니 집으로 보내졌음</li> <li>· 피아노 전공하는 형에게 돈이 많이 들어감</li> <li>· 새엄마사랑을 못 받았고 아빠는 엄청 화내는 성격이며 아빠에게 맞았고 집이 편하지 않음</li> <li>· 아빠는 바람을 피우고 엄마는 우울하고 기분에 따라 혼냄</li> <li>· 할머니, 아빠가 장남인 오빠만 항상 챙겼고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가출 후 엄마 가 학교에 자퇴서를 냈음</li> <li>· 부모는 없고 할머니와 살았는데 풀 데가 없고 답답했고 집이 너무 싫었음</li> <li>· 아빠가 때려서 무서움</li> <li>· 엄마가 초2때 가출하였고 아버지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들락거려서 할머니가 키움</li> </ul>
학업 중단의 배경	노는 친구들과 어울림(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들과 심하게 놀</li> <li>· 친구와 어울려서 사고 침</li> <li>· 안좋은 친구들과 어울림</li> <li>· 노는 애들과 다니고 술, 담배 배웠음</li> <li>· 노는 아이들과 어울렸고 내가 그만 두니 친구 2명도 따라 그만둠</li> <li>· 남자친구를 잘못 만났는데 되게 안좋은 아이였음</li> <li>· 노는 친구 많은 학교에 진학 함</li> <li>· 친구 잘못 만나 사고치고, 복학이후도 일진 아이들로 인해 적응 못함</li> </ul>
	친구관계의 어려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의 따돌림과 배신으로 충격을 받아 걸으로 친한 척 함</li> <li>· 친구들이 자신을 무서워해서 친해지지 못함</li> <li>· 친구관계가 어려웠고 학교 다니면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없었음</li> <li>· 친구들 맞추기가 힘들었고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졌음</li> <li>· 학교에서는 혼자라고 생각되었음</li> <li>· 안좋은 소문에 친구들과 더 사이가 나빠짐</li> <li>· 애들이 힘세고 뻘새어서 힘 자랑하는 애들이 많았음</li> </ul>
학업중단 의 결정 적 계기	심리적 불안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상태</li> <li>· 엄마 가출로 마음이 아프고 방향했음</li> <li>· 중3부터 조울증,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앉아 있는게 힘들었고 자살행동을 해서 입원치료 받았음</li> <li>· 남자친구가 때릴까봐 밖을 못 나갔음</li> <li>·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함</li> <li>· 하기 싫는데 억지로 다시 복학해서 싫었고 학교 가면 나이가 창피했음</li> </ul>
	가출과 출석일 수 부족(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고를 치고 다님</li> <li>· 징계 먹다가 계속 도망다니느라 멍멍이를 많이 침</li> <li>· 가출해 출석일수 모자라 자동 퇴학됨</li> <li>· 학교가 멀어서 지각이 잦음</li> </ul>



영역	범주(빈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울증 때문에 치료받고 상담받느라 수업에 빠져 수업일수 때문에 자퇴했음</li> <li>·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 같이 살게 되면서 가출을 하였음</li> <li>· 밖에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땡땡이치다가 학교에서 자퇴서 내라고 했음</li> <li>· 학교를 빠지고 자꾸 안나가다 보니까 습관이 됨</li> <li>· 출석일수 미달로 퇴학권고 받음</li> </ul>
	대인관계 갈등 심화(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쳤다고 학교와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 부담이 감</li> <li>· 친구랑 싸웠는데 선생님이 화내는 표정이어서 싫었고 선생님을 때림</li> <li>· 반 아이들과 틀어지고 남자친구를 소개받으면서 가출 함</li> <li>· 반 친구에게 적응 어려워 자퇴함</li> <li>· 2학년 수학여행 갔다 와서 친구들이 말을 안하고 무시함</li> <li>· 괜히 자기 기분 안좋으면 학교 왜 왔냐고 시비 걸고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일진아이들 때문에 자퇴했음</li> </ul>
	규율위반으로 징계 받음(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 못 끊어 경고받고 자퇴서 쓰게 됨</li> <li>· 입학 처음부터 담배 피우다 걸림</li> <li>· 학교에서 노는 아이로 찍혀서 학자가 물 흐린다는 말에 아빠가 화가 나서 자퇴도장 찍었음</li> </ul>
학업중단 당시의 느낌	부정적 느낌 : 허탈감, 화, 소외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뭘할지 몰라 답답했고 무료한 느낌</li> <li>· 한두달 지난 후 짜증남</li> <li>· 미래가 걱정되었지만 계속 반항</li> <li>· 자퇴 후 좌절, 허탈감, 우울, 방황. 맨날 나가 놀고 술 먹고, 붕 떠있는 느낌, 원망감, 상실감, 열등감</li> <li>· 학업중단에 대한 아쉬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느낌, 하찮은 느낌</li> <li>· 다른 애들은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데 소외감이 느껴짐</li> <li>· 처음엔 허탈했고 공부를 하지 못해 아쉬웠음</li> <li>· 자퇴 후 밖에 나가기 싫고 교복 입은 애들 보면 움츠러들었음</li> <li>· 검정고시 합격해도 대학과 취업할 때 불이익 받을까봐 후회됨</li> <li>· 자존심 상하고 화남</li> </ul>
	긍정적 느낌 : 편하고 좋다(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에 부모님께 미안했지만 놀아서 좋았음</li> <li>· 이제 늦잠 자겠구나 생각함</li> <li>· 늦잠자고 놀아서 오히려 좋았음</li> <li>· 안좋았던 친구 마주치지 않는게 편함</li> </ul>
학업중단 후 생활	불규칙한 생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에서 자고 컴퓨터만 함</li> <li>· 맨날 나가 놀고 술 먹음</li> <li>· 피씨방에 가고 술 먹고 놀았음</li> <li>· 나가 놀았고 밤이 되도 집에 오기 싫어 한달을 나가 놀았음</li> <li>·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았고 할 일이 없었음</li> <li>· 티비 보거나 학을 접거나 한두달을 그렇게 보냈음</li> <li>· 삶의 이유가 없이 몸 가는대로 마음가는대로 살았음</li> <li>· 그냥 놀</li> <li>· 밤새 노래방, PC방에서 놀</li> </ul>
	관계단절과 사회적 철수, 갈등(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음</li> <li>· 사람 만나기 싫었음</li> <li>· 가족과 관계가 싸늘하고 주변사람들을 만나지 못함</li> <li>· 안좋은 말이 오갈 것 같아 서로 말을 안했음</li> <li>· 집이 싫어서 안방 베란다를 깨고 나오려고 함</li> <li>· 사람들 만나면 식은 땀 거부 반응 났음</li> <li>· 친구들이 바쁘다고 할 때 배신감이 들었고, 가족과 단절,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음</li> <li>·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음</li> </ul>

영역	범주(빈도)	내용
	취업과 아르바이트(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모식당에서 일함</li> <li>· 주유소에서 알바함</li> <li>· 제빵공장 취업, 편의점 알바</li> <li>· 서빙, 공장, 주유소, 전단지 알바했음</li> <li>· 한두 달 알바하면서 지냈음</li> <li>· 공장에서 일함</li> </ul>
	문제행동의 악화(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해서 깡패조직에도 들어가고 하우스에서 도박을 해 경찰서를 다녀옴</li> <li>· 가출함</li> <li>· 경찰서도 다녀왔음</li> <li>· 폭주족과 친한 남자친구와 함께 삼</li> </ul>
	학력/졸업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과 졸업장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알바로는 평생직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함</li> <li>·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면 사회에서 별로 안좋게 볼 것 같았음</li> <li>· 놀건 다 놀아봤다는 생각과 고등학교 졸업 안한 언니와 대학생 언니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가 됐고 난 잘해야겠다 생각했음</li> <li>· 중졸이면 무시당할 거 같았고, 군대도 못가고 자퇴하고 빈둥거리는 것으로 보는 주변 시선이 싫음</li> <li>· 고등학교 졸업 안한 사람 되면 한심한 사람 될 것 같음</li> <li>· 중졸은 사회에서 폭이 좁고 현재 방통고 빠지지 않고 있음</li> <li>·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음</li> <li>· 검정고시 할 줄 몰랐고 다 안된다고 하니 오기가 생겼다</li> <li>· 고등학교라도 나와야지 하는 생각을 함</li> <li>· 사회에서 중졸이라고 하면 무시하고 임금과 직위의 차이가 있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니 까 싫었고, 양로원 봉사료 할머니가 저랑 누나를 키워주신 고마움을 알게 됐음</li> </ul>
학업복귀 결정요인	주위사람들의 권유(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의 친척 형의 도움(고민 들어줌, 팜플렛을 줌)이 있었음</li> <li>· 아빠친구 아들이 다님</li> <li>· 새로오신 목사님을 수련회에서 만났고 가보자고 함</li> <li>· 가출해서 방황하던 중 고모가 고등학교 졸업장 따도록 권유</li> <li>· 친구의 삼촌이 아껴주고 검정고시 학원 등록 권유하며 격려</li> <li>· 친척언니가 밥 사주면서 설득하고 권유하여 센터를 소개받았음</li> <li>· 무료로 검정고시 공부하게 해 줌</li> <li>· 공장에서 반장님이랑 삼촌들 격려해주고 검정고시라도 따라고 하셨음</li> </ul>
	자신의 결심과 정보탐색 노력(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연락해 봄</li> <li>· 집에만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검색</li> <li>·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함</li> <li>· 노는 애들 있는 학교에 가기는 싫었고 학구열이 발동해 검정고시 결심</li> <li>· 아르바이트 해서 돈 벌어 검정고시 학원 접수</li> <li>· 졸업앨범 갖고 싶었고 검정고시 학원 준비</li> <li>·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을 알아보다가 방통고를 택했음</li> </ul>
	가족의 권유(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가 학교를 다닐 것을 권유, 많이 상의해서 검정고시 봐 대학가기로 결정</li> <li>· 졸업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한다고 부모님과 친구들이 계속 권하고 기대함</li> <li>· 오빠 설득하고 나를 위해 많이 울었다 아빠가 센터 신청해줌 고마웠음</li> <li>· 엄마가 컴퓨터에 연락해 입소했음</li> <li>· 엄마와 담임선생님이 센터 연결해 줌</li> <li>· 할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소원이었음</li> </ul>
	상담자의 지지적 역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선생님이 엄마와의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셨음</li> <li>· 엄마사랑을 못 받아서 상담선생님이 엄마로 여겨질 정도로 편안했고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었으며, 상담자 때문에 완전 달라졌음</li> <li>· 상담실 선생님이 전화를 해 주었고 좋으셔서 센터에 나감</li> </ul>

영역	범주(빈도)	내용
학업 복귀 후 겪는 어려움	주위사람들과 의 관계(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위 사람들에 휘말리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li> <li>· 예전에 같이 놀던 애들이랑 연락을 끊는 게 힘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힘들</li> <li>· 자신은 편하게 대하는데 여자들이 불편해 함</li> <li>· 집에서 눈치를 주니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겠구나 싶음</li> <li>· 인간관계의 어려운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염려했음</li> <li>· 동생들과 다녀야 하니 창피, 선생님들이 안 좋은 눈으로 봄</li> </ul>
	생활습관 바꾸기(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담배 못하니까 힘들</li> <li>·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li> <li>· 제빵공장에서 아침 7시부터 밤늦게 까지 너무 힘들었음</li> <li>· 잠이 많아서 첫날 안가고 프로그램 두 번째 날 갔음</li> </ul>
	공부/수업 따라가기(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에 성과에 나오지 않음</li> <li>· 공부방법을 알게 되어 쉽지만 집중력이 없고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음</li> <li>· 공부를 처음 해보니 이해가 안되어 힘들었음</li> </ul>
학업지속 요인	본인의 의지와 노력(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쉽게 보고 시작했는데 진짜 어렵고 검정고시를 떨어지니 의욕이 떨어짐</li> <li>· 고민을 계속하지만 공동체 회의, 논술대회도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학교 오는 것이 설레고 너무 가고 싶음</li> <li>·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공부함</li> <li>· 검정고시를 알아봐 달라고 부모님께 부탁함</li> <li>· 하기 싫고 화가 나더라도 참고 공부습관을 붙이려고 계속 앉아 있음</li> <li>· 가게에서 일하면서 철이 일찍 들었고 본인의 의지로 함</li> <li>· 친구삼촌의 말을 잔소리라 생각 안하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했고 내가 벌여 학원 등록한거라 아까워서 열심히 했음</li> <li>· 힘들더라도 집에서 떳떳하게 있고 싶었고 그래서 일하면서 검정고시 준비</li> <li>· 마음잡고 정신차리고 현재 방통고 빠지지 않고 있음</li> <li>· 점점 공부가 재미있고 나의 노력은 공부였음</li> <li>· 검정고시 준비는 다 안된다고만 하니까 진짜 되는지 안되는지 오기를 품고 했음</li> <li>· 학원 잘 나오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스스로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음</li> <li>· 선생님에게 반항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할머니 때문에라도 참자고 결심했음</li> </ul>
	개인 의 노력 과 변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전공해서 어린이 집 교사가 되고 싶음</li> <li>· 한국국적을 따서 중국어 능력시험을 칠 계획이고 검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음</li> <li>· 고졸 검정고시 준비하고 부사관이 되고 싶음</li> <li>· 미용과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음</li> <li>· 온라인대학 진학했고 상담선생님이 되고 싶음</li> <li>· 요리사가 되고 싶음</li> <li>· 취업을 하고 싶음</li> <li>· 졸업장 따라왔다 생각했음</li> <li>· 검정고시 후 사회복지 쪽으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 진학</li> <li>· 검정고시 준비하여 유아교육과 가고 싶음</li> <li>·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과 피부관련 과를 가고 싶음</li> <li>· 가수를 하고 싶은 꿈이 있음</li> </ul>
	공부 방법을 익혀 학습에 대한 흥미 향상(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수업, 5박6일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서로 존중해 주어 일반학교가 흑백이라면 대안학교는 칼라임</li> <li>· 여행하면서 변화하자고 생각했고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학교에서 나가지 않을 것임</li> <li>· 평범함 학생으로 봐 줘서 좋고 수업을 통제로 위우고 제주도도 여행을 감</li> <li>· 써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줌</li> <li>· 일단 도서관에 가서 무조건 썼음</li> <li>· 지금 학교는 연령대가 다양하고 2주 한번씩 나가니까 괜찮음</li> <li>· 친척 언니가 검정고시 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공부가 재미있고 혼자서는 기초가 부</li> </ul>

영역	범주(빈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족해 학원을 다녔음</li> <li>· 학생수가 적고 쉬엄쉬엄 수업을 함</li> </ul>
	자기 관리 능력의 향상(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를 끊음</li> <li>· 노래방에서 놀아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회를 감</li> <li>· 일하면서 일찍 일어나게 되었음</li> <li>· 제빵 취업은 지금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용돈 정도만 벌어야겠다 해서 알바 함</li> <li>· 작심삼일, 집중력 없었는데 검정고시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많이 발전했음</li> <li>· 지각을 해도 나옴</li> <li>·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 한잔하거나 노래방을 감</li> </ul>
	좌절 극복 및 성공 경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날보다는 언어 이해 단계가 올라 옴</li> <li>· 고모네 가게에서 일하며 500만원 모았는데 사고합의금으로 날려 좌절했지만 교회에 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좌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음</li> <li>· 7월에 또 공부해서 2과목 붙고 평균 1점차로 떨어져 좌절했지만 이번에 검정고시 합격</li> <li>· 두드림 직업체험, 제빵자격증 한번에 따</li> <li>· 1년 준비해서 검정고시 합격, 그해 11월에 수능보아 대학교 진학</li> <li>· 제과 배우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애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 좋고 떳떳하게 내 앞길을 생각할 수 있다는게 좋음</li> </ul>
	정서적 지지와 자극을 주는 친구(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생각과 의견이 분명한 개성있는 애들과 친함</li> <li>·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줌</li> <li>·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애들과 친하게 지냄</li> <li>· 다른 애랑 친해 줌</li> <li>· 미래가 희미해지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같이 놀던 언니가 목사 딸이어서 교회에 데리고 감</li> <li>· 시험보기 전 한달 동안 공부 잘하는 친구와 도서관 다니며 함께 문제집을 풀고 행복하고 너무 좋음</li> <li>· 연령대가 다양해서 괜찮고 사람들과도 친해졌음</li> <li>· 공부하게 된 계기는 울면서 충고해 준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임</li> <li>· 친구들과 똑같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고 남자친구가 검정고시 합격을 함</li> <li>· 복교프로그램 하면서 만난 아이들과 꼭 성공하자면서 약속하고 격려했고 우리 반 큰형이 잘 이끌어 주었음</li> </ul>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과 고민을 상담하면 잘 들어주며 지지해주고 잘못하면 이유를 물어보고 학생들의 의사를 물어봄</li> <li>·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관심을 가져주며 나를 믿어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해줘서 선생님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함</li> <li>·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줌</li> <li>· 상담선생님이 진로결정, 등록금 후원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음</li> <li>· 학원 1년 등록하면 2번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세 번째도 그냥 나오라고 도와 주셨음</li> <li>· 상담선생님은 내가 잘못된 것들이 다 경험이라고 말해주었고 내가 생각이 있고 똑똑하다고 하셨음</li> <li>· 챙겨주고 자기 자식처럼 잘 돌봐주었음</li> <li>· 감정조절 안되면 상담하고 지원도 해주시니 많이 변했음</li> <li>· 상담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해 줌</li> <li>· 상담선생님과 힘들 때면 온라인상에서 연락하고 있고, 담임선생님이 많이 챙겨 주셨고 학교를 잘 다녀서 토닥이는 선생님도 계시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보고 학교를 갔음</li> </ul>
	가족과의 관계 개선(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생각하면 과거에 사고친거 미안하고 자랑할 거리를 드리고 싶음</li> <li>· 용돈을 달라고 하면 한심하다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일을 하니 아빠가 힘들지 하면서 밥을 차려주심</li> <li>· 센터 다니고 나서 학원비를 아빠가 대주셨고 부모님과 화해했음</li> </ul>

영역	범주(빈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나간 이후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검정고시 합격 후 아빠가 한 시름 놓았다고 함</li> </ul>
	주위 사람들의 도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모가 이끌어주고 교육을 많이 시켜 책임감, 의무감, 의지력 생겼음</li> <li>· 좌절했을 때 친구삼촌이 너는 친구들이랑 다르다, 잘 할 수 있다, 성공할 것 같다고 말해줌</li> <li>·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친척언니, 교수님, 상담선생님들이 있었음</li> <li>·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인 언니와 친구들이 고민을 상담해 주어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됨</li> </ul>
	학업중단과 복귀 가정을 겪으면서 성장했다(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민 없는 사람 없고 고민을 피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부딪히는 게 중요함</li> <li>· 부모님도 믿지 못했고 학교 선생님도 돈 있고 가족 있는 아이들만 이뻐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경계를 풀고 받아들일 수 있음</li> <li>· 어른처럼 생활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 두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학생으로 봐주기를 기대하고 내 자신을 위해 후회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함</li> <li>· 놀건 다 놀아봤으니 다른 인생을 살자 생각했고 공부하고 목표달성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가계일 하면서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었음</li> <li>· 가족 생각하면 과거 사고 친거 미안하고, 자랑거리를 드리고 싶고, 내 힘으로 돈 벌어 대 학교고 싶고 자신있게 시도 하는 당당함을 가지려 함</li> <li>· 항상 혼나는 아이였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고 자립하고 싶고, 잠을 못자지만 약속을 지킴</li> <li>·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와준 사람이 많이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 고맙고, 옛날 일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함</li> <li>· 학교 그만둔다고 인생 끝난 건 아니고 혼자라고 느껴지면 힘이 되는 사람을 찾아보고 다시 꿈을 찾아도 늦지 않음</li> <li>· 부모, 선생님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느껴야 함</li> <li>· 공장생활, 사회 어른들에게 많이 배웠고 할머니 생각하면서 어려운 거 참았는데 빠져린 사회경험 통해 성장했고, 학교 안가려는 동생을 도와주고 있음</li> </ul>
학업 중단과 복귀 과정에서 배운 점	자퇴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퇴한 애들이 부럽다고 생각하거나 다 잘 될 거라는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자퇴 후를 생각해야 함</li> <li>· 정말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그만 둘 것</li> <li>· 계획이 있으면 그만두고 계획이 없으면 그냥 다닐 것</li> <li>· 애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늦기 전에 일찍 시작해야 함</li> <li>· 중단한 아이들에게 마음잡아 공부해라는 말하고 싶음</li> <li>· 혼자라 느껴지면 힘이 되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희망이 될 사람을 찾아보고 그 다음 꿈을 다시 찾아도 늦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음</li> </ul>
	고생을 겪어봐야 철이 든다(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로 고생도 해보면 철이 듬</li> <li>·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면 됨</li> <li>· 그냥 놔두고 후회하고 느껴봐야 함</li> <li>·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는 것 보다는 빠져린 사회경험 한번쯤은 해봐야 도움이 됨</li> </ul>
	학교 다니는게 훨씬 편하다(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가 목적이 되어야 함</li> <li>· 친구관계 못하니까 학교 그만두고 고생하지 말고 잘 다니라고 말해주고 싶음</li> <li>· 학교 그만두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고 학교 다니는게 훨씬 편하고, 진로도 편함</li> </ul>

## The Experience of School Dropouts who Return to Academy

Oh, Hea Young

Jee, Seung Hee

Park, Hyun Jin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school dropouts who undergo successful returning to academic cour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at continuous factors influence experiences of return academ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2 adolescents who experiences from dropout to returning to academy were interviewed, and than the interview data was analysed through the medium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classified into 8 domains. The 8 domains were 'background of school dropout', 'decisive events of dropout', 'feeling of dropout situation', 'the life after dropout', 'decisive events of return to academy', 'the difficulties from return process', 'continuous factors of studies', 'learning from dropout and return process'. This study will hopefully offer a new perspective to the growing concerns of dropouts intervention. Further this result will become the fundamental data of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the training counselor for effective helping dropout.

*Key words* : dropout school, return academy, qualitative research, CQR